

---

## 제6회 전국 대학생 축산물품질평가대회 한우부문 대상 수상기 도전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KAPE!

충북대학교 이재원, 유미슬

---



작년 이맘때쯤이었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개최한 '제5회 축산물품질평가대회'에서 학과 선배들의 단체상 수상은 저희 둘로 하여금 2016년 대회에 대한 출전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 년이 지난 5월 무렵 '제6회 축산물품질평가대회'라는 문구가 직혀있는 포스터를 보자마자 달려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축산학도들에게 인기가 많은 대회인 만큼 출전 의사를 밝히는 친구들이 많았고, 본선 출전권은 각 대학별 예선전을 통해 네 명만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준비했고 결국 예선전을 통과해 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7월경 예선전을 치르고 오창에 위치한 팜스토리한방으로 첫 교육을 받으러 간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당시 정주 출신도 아닐뿐더러 자가용을 가진 사람도 없었던 저희는 교육장을 찾아가는 일마저 순탄치 않았습니다. 버스노선도 많이 없던 터라 결국 택시를 탔지만 기사님께서도 정확히 위치를 알지 못해 어렵사리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크다..." 처음 예생실에 현수되어 있던 소도체를 보았을 때 저희도 무르게 나왔던 말입니다. 위압감이 늘 정도로 큰 소들을 둘러보면서 한편으로는 농가에서 징성껏 키운 이 소들의 '품질을 평가한다'는 것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며,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말로만 듣고 그림으로만 보았던 소 품질평가 과정을 이해하고 익히는 것은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담당 교관이었던 한효동 과장님에게 많이 의지하며 교육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교육받는 날, 등급판정 장비를 갖추고 위생 가운과 장화를 착용하니 마치 축산물품질평가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늘뜬 기분도 잠시 소 등급판정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도체에 대한 등급판정은 평가할 항목도 많고, 항복 안에서 점수가 세분화 되어 나뉘기 때문에 꼼꼼하고 신중하게 평가해야 했습니다. 마음은 15년 치 베테랑인 교관님처럼 한 번에 소도체들의 등급을 결정하고 기록표를 작성하고 싶었지만, 익숙지 않은 저희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소가 비슷해 보였습니다.



철저한 기준을 기반으로 등급판정을 하는 것이었지만, 그 차이점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익혀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소도체별 판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눈썰미'를 길러야 했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대회는 등급판정뿐만 아니라 축산업과 식육학, 유통농항에 대한 지식도 평가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이론평가 준비도 해야 했습니다. 교육받은 후 자율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쪽지시험도 보고, 교관님과의 강행군은 이어졌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품질평가 과정이 익숙해지고, 현장에서 도체를 보고 항목을 체크하면서 최종등급을 내긴 후 등급이 맞았을 때의 뿌듯함과 짜릿함은 교육에 대한 흥미와 열정을 더욱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대회 날이 찾아왔고, 몇 번이고 반복훈련을 받았던 실기평가였지만 저희는 긴장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많은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왔고,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손을 떨리게 하였습니다. 실기평가가 끝나고 후련한 마음과 아쉬운 마음이 뒤섞였고, 남은 필기평가를 위해 다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결국 필기시험까지 끝마쳤을 때 '상을 못 타더라도 정말 좋은 경험을 했다고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준비한 많은 이벤트와 볼거리를 즐기고 나니 시상식이 찾아왔습니다. 입은 "괜찮아"를 연달아 말하고 있었지만 손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 둘 시상이 진행되고, 저희 팀 이름인 '마블링블링'은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대상만을 남겨놓고 손에 땀을 뚫고 있을 때 저희의 팀 이름이 불렸습니다. 너무나 기뻐, 많은 감정과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상이라는 큰 상에 대한 기쁨도 컸지만 3주간 값진 경험에 대한 감사함도 컸습니다.

이렇게 저희의 '제6회 전국 대학생 축산물품질평가대회'는 값진 결과를 낳고 끝이 났습니다. 경쟁을 해야 하는 대회이지만 다양한 이벤트와 콘텐츠로 즐거운 1박 2일을 보냈고, 많은 대학에서 온 학우 분들도 이번 대회를 통해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경험을 얻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어서 정말 기쁘고 저희 교육을 위해 애써 주신 백상국 소장님, 한효동 과장님 외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축산업에 이바지하는 인재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